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3분기 3.2%로 최종 상향 조정... 예상보다 강한 소비
- WSJ: 바이든과 의회, 인플레를 예산안 핵심사안으로 다루지 않아
- Bloomberg: 미 실업수당 21만6천건 늘어… 여전히 사상 최고치로 낮아

[글로벌 금융]
- The Economist: 올해 고통스러웠던 5가지 금융 추세

[비즈니스 경영]
- Bloomberg: 탑 비즈니스 리더들이 권하는 52권의 책들

[뉴욕시 교통]
- Bloomberg: 뉴욕 MTA, 5.5% 요금 인상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승인

[항공/물류]
- CNN Business: 오늘 아침 현재, 미국에 1천4백86편 무더기 취소
- WSJ: 선주들, 그린 화물 선박으로 전환에 어려움 겪어

[부동산]
- CNBC: 모기지 재융자 수요 6% 늘어

[중국 코비드]
- Bloomberg: 중국, 일일 1백만명 코로나 확진자와 5천명의 사망자 보게 된다

[국제 경제]
- CNBC: 중국 경제,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탈바꿈 중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미국 3분기 성장률, 3.2%로 최종집계… 잠정치보다 0.3%P↑
- 연합: 독일 재무, 美IRA에 '프렌드쇼어링' 촉구…"민주주의 FTA 필요"
- 연합: 판테온 "Fed, 내년 여름부터 금리 인하 전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마존, EU와의 반독점 소송 합의로 벌금 면했다
- WSJ: 넷플릭스, 사용자간 비밀번호 공유 막는다
- CNBC: AMC, 자본금 확충과 역주식 병합 제안…주가 급락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Third-Quarter GDP Revised Higher to 3.2% on Firmer Spending
미 3분기 3.2%로 최종 상향 조정... 예상보다 강한 소비

- 당초 예상치보다 3분기 미국 경제가 더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지출과 비즈니스 투자가 상향 조정된 결과다.
- 인플레 감안한 GDP가 3분기에 연율로 3.2% 성장했다고 목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일반적으로 GDP는 속보치, 잠정치, 최종치로 나누어 발표되는데, 잠정치 2.9%보다 높게 나타났다.
- 개인 소비가 잠정적으로 1.7% 상승했다고 했으나 최종 2.3% 상승했고 특히 강한 서비스 지출을 보였다.
- 고물가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비즈니스 수요가 강했으며, 강한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이 가구 소비를 뒷받침했다. 내년에도 소비가 강할지는 모른다.

Bloomberg 기사

WSJ: Biden and Congress Still Haven't Made Inflation Central in Budget Matters
바이든과 의회, 인플레를 예산안 핵심사안으로 다루지 않아

-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잡기. 연준은 이에 가장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의회와 바이든은 이에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
- 물론 연방 지출법안에는 대규모 부양책, 즉, 영업세 삭감, 아동 세액 공제 확대, 인플레 부담 의료 지출 확대 같은 것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 한마디로 과거 2년간의 과도한 지출 정책에서는 탈바꿈한 것이다.
- 그러나 연방예상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내년에 비국방과 비긴급 지출을 8%, 국방비은 10% 늘렸다. 수요와 인플레를 부추킬 수 있는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올해 긴급 지출은 8백50억달러였는데 작년에는 1백50억달러 였다.
- 민주당과 행정부는 아동 소득 공제 확대등 지출 확대를 강력히 시도했지만 공화당도 감세를 위해 적자를 늘렸고 국방비 지출 규모를 인플레율 보다 높였다.

WSJ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Show Businesses Reluctant to Lay Off Workers
미 실업수당 21만6천건 늘어… 여전히 사상 최고치로 낮아

- 미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사상 최대로 낮아서 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고용주가 여전히 해고 조치를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
- 12월 17일 끝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천건이 증가한 21만6천건으로 나타났다고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한편 계속 실업청구를 하는 건수는 1백67만건으로 낮아졌다. 10월초 이래로 처음으로 낮아졌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금융]

The Economist: Five financial trends that 2022 killed
올해 고통스러웠던 5가지 금융 추세

1.제로 금리는 끝났다. 현재 연준의 금리는 4.25-4.5%이며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 길을 따랐다. 내년에 금리가 영국과 미국은 4.5~5%— 유로존은 3~3.5%로 예상된다.

2.오래 지속되어온 '불 마켓'의 종식인데 올해s&p 500는 25%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미국, 유럽, 이머징 마켓 채권도 각각 16%, 12%, 18%, 15% 떨어졌다.

3.자본 증발인데, 미국 회사들이 지난해 발행한 정크 부채는 4천8백6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는 4분의 3이나 떨어졌다.

4.가치주가 정장주를 잠식. 올해는 금리 인상이 상황을 역전시켰다. 값싼 돈의 종말은 투자자의 시야를 단축시켜 먼 미래의 이익보다 즉각적인 이익을 선호하도록 강요한다. 성장주는 아웃이고, 가치주가 다시 유행한다.

5.나락으로 떨어진 가상화폐. 2021년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든 암호화폐의 시장가치는 거의 3조 달러. 연초의 8천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 이후 다시 약 8000억 달러로 떨어졌다.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 경영]

Bloomberg: The 52 New Books That Top Business Leaders Are Recommending—and Why
탑 비즈니스 리더들이 권하는 52권의 책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원본 참조

Bloomberg 기사

[뉴욕시 교통]

Bloomberg: New York's MTA Approves Budget With Anticipated 5.5% Fare Hike
뉴욕 MTA, 5.5% 요금 인상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승인

- 미국 최대의 교통체계인 MTA가 지하철 노선의 5.5% 요금 인상과 지출 삭감, 서비스 축소를 포함한 2023년 1백92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승인했다.
- MTA는 재택 근무의 확대와 지하철에서의 폭력 사건이 이어지며 승객 수가 줄어 6억 달러의 적자를 떠안게 되었다. 연방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고갈되며 2025년에는 적자가 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MTA는 추가적인 서비스 축소와 요금 인상, 해고를 피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한편 MTA 시스템의 전체 승객 수는 2019년 수준의 약 60%로 돌아왔으며, 2026년 말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의 80%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항공/물류]

CNN Business: Thursday flight cancellations top 1,200 nationwide, disrupting holiday travel
오늘 아침 현재, 미국에 1천4백86편 무더기 취소

- 또한 내일 금요일 출항 예정이었던 미국 7백편의 항공기가 취소되었다.
- 이와 관련 비행기 환승 건수가 많은 시카고 오하이오 공항, 덴버 국제 공항,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 등이 타격을 입고 있다.
- 혹한과 강풍으로 홀리데이 시즌의 항공 여행객과 미국인 1억 이상이 주의보 영향권에 있다.

CNN Business기사

WSJ: Shipping Industry Balks at Green Energy Transition
선주들, 청정 화물 선박으로 전환에 어려움 겪어

- 해운 선박업계는 수십년전 부터 주 연료를 석탄에서 오일로 변경한 이래 가장 커다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선주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연료가 새로운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정부와 산업 규정으로 정해진 환경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을 언제쯤 회수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청정 에너지에 부합하는 선박 투자, 대안을 가져다 주는 연료 생산 또다른 관련 인프라 비용에 향후 수십년간 3조 달러가 소요된다고 관련 서비스사인 Clarksons은 밝혔다.

- 예컨데 전세계 6만 상업용 선박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이른바 벙크 연료로 알려진 타르와 같은 연료에 대체 연료로서 메탄올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해양 선박운행으로 매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3%가 배출되고 있다고 국제해양기구(IMO)는 밝혔다.

WSJ 기사

[부동산]

CNBC: Mortgage refinance demand surged 6%, as rates dropped to the lowest level since September
모기지 재융자 수요 6% 늘어

- 이같은 6% 수치는 전주와 비교한 수치인데 이자율이 지난 9월이해 최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Mortgage Bankers Association는 밝혔다. 그러나 거래량은 1년 전 같은 주보다 여전히 85% 낮았다.

- 계약한 평균 이자율은 30년 고정 모기지는 6.42%에서 6.34%로 줄었다.

- 한편 주택 구매 신청자 숫자는 전통적으로 최근 시즌은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전주 비교 0.1% 줄었다.

CNBC 기사

[중국 코비드]

Bloomberg: China Is Likely Seeing 1 Million Covid Cases, 5,000 Deaths a Day
중국, 일일 1백만명 코로나 확진자와 5천명의 사망자 보게 된다

-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앞으로 매일 1백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5천명의 사망자를 겪게 될 수 있다. 또 1월에 하루 확진자 수가 3백70만 명까지 증가하고, 3월에 다시 4백20만명으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는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에서 갑자기 벗어난 여파가 정부 집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번주 수요일 2천9백66명의 신규 확진자와 12월 10명 미만의 코로나 사망자를 보고했지만, 중국의 병원은 환자로 넘쳐나고 화장장은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

- 한편 중국은 대부분의 대량 검사 부스를 운영 중단하고 검사 결과 보고 의무를 없앴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망 진단 기준을 좁혔다. 따라서 중국 공식 데이터가 실제 발병 및 사망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국제 경제]

CNBC: China's economy looks different than it was going into the pandemic
중국 경제,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탈바꿈 중

- 중국의 주요 투자은행인 CICC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이전에 부동산과 인프라스트럭처에 의존했다면 현재는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 한마디로 중국의 2023년 경제가 팬데믹 전인 2019년와는 변모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
- 즉,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장비, 정보 전송업(information transmission), 소프트웨어, 그린 경제의 경우 탈탄소를 위해 전기 전력, 화학 쪽 경제로 방향을 틀고 있다.
- 이와 관련 미국, 유럽의 수요는 준다. 동남아시아 수출은 반대로 늘고 있다.

CNBC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미국 3분기 성장률, 3.2%로 최종집계… 잠정치보다 0.3%P↑
- 연합: 독일 재무, 美IRA에 '프렌드쇼어링' 촉구…"민주주의 FTA 필요"
- 연합: 판테온 "Fed, 내년 여름부터 금리 인하 전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mazon Agrees to Settle EU Antitrust Cases, Avoiding Fines
아마존, EU와의 반독점 소송 합의로 벌금 면했다

- 아마존이 EU와의 반독점 소송에 합의하며 벌금을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마존은 EU 규제당국이 아마존 플랫폼에서의 제3 판매자에게 부당한 피해로 여겨졌던 비즈니스 관행을 변경하기로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 아마존은 아마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제3 판매자들에게 아마존 '바이 박스(Buy Box)'를 기본 옵션으로 사용하거나 프라임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동등

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 또 제3 판매자와의 경쟁을 위해 비공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전체 수익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게 될 수 있다.

- 한편 EU는 애플, 구글, 메타 등의 기업을 상대로 또 다른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또 2024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에 따라 이른바 “gatekeeper”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The End of Netflix Password Sharing Is Nigh
넷플릭스, 사용자간 비밀번호 공유 막는다

-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의 감소와 업계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용자의 반발을 사지 않고 사용자간 암호 공유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고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부터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요금 지불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 넷플릭스는 예전부터 계정 비밀번호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 약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점차 비밀번호 공유에 대한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날짜나 부과 가격을 밝히지는 않았다.

- 넷플릭스의 이런 노력은 내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7억 2천 1백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트리밍 업체들의 손실이 커짐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될 수 있다.

- 한편 넷플릭스는 수년간의 고심 끝에 콘텐츠에 광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월 6.99달러의 광고 포함 구독이 11월 출시되었는데, 더 저렴한 구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이다.

WSJ 기사

CNBC: AMC plunges after theater company announces capital raise, proposes reverse stock split
AMC, 자본금 확충과 역주식 병합 제안…주가 급락

- 세계 최대 규모 영화관 체인인 AMC가 이번주 목요일 1억 1천만 달러의 신규 자본금 인상과 주식 병합을 제안한 후 주가가 52주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며 급락했다.

- AMC는 팬데믹 시기 극장들이 문을 닫으며 쌓인 막대한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블록버스터급 영화 개봉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11월에는 전년 대비 높은 수익을 기록했지만 높은 운영비로 인해 손실을 보고했다. 또 영화 상영 비용 및 임대료 등으로 3분기동안 현금 1억 7천 9백만 달러를 소진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AMC는 아이맥스, 돌비 시네마와 같은 특수 효과 스크린의 수를 늘리는 등 극장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인플레에 미국 농부 주머니는 '두둑'…49년만에 최고 전망

미국 농무부 발표, 대비 14%↑…원인은 농·축산물 가격 상승

올해 필수품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미국 농업인들의 소득이 크게 상승해 49년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자 기사에서 전했다.

WSJ는 최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전망치를 인용해 올해 미국의 순농가소득(net farm income)이 1천605억 달러(204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 증가에 해당한다.

USDA가 정의하는 순농가소득은 농장 운영자들이 노동·경영·자본을 투입해 올린 현금·비(非)현금을 망라한 총 수익에서 생산 비용을 뺀 것으로,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통계치로 활용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